

가족을 지켜라: MBC, 아빠! 어디 가?

강다현

스타의 가족이 스타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요즘이다. 과거 연예인의 가족이 단발성 방송에 등장하던 것과 달리,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에는 연예인과 그의 실제 가족이 고정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1개 이상씩 있다. KBS <맘마미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자기야 백년손님>, tv조선 <오냐오냐>, 채널A <웰컴 투 시월드>, MBC <아빠! 어디 가?>, jtbc <고부 스캔들>, <유자식 상팔자>까지 그 대상은 스타의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배우자, 자녀로까지 확장된다. 흡사 사라진 대가족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이 중 가장 화제가 된 프로그램은 MBC <아빠! 어디 가?>(이하 <아어가>)이다. <아어가>는 연예인 아빠 5명과 그의 2세가 매주 낫선 시골 마을로 떠나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주말 황금시간대 시청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아어가>에 출연하는 다섯 아이들은 아빠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출연 연예인이 이름 대신 '00아빠'라고 불리고, 주말 내내 각종 매스컴에는 '윤후 먹방'과 같은 프로그램 속 아이들의 모습이 회자된다. 이들 아빠와 자녀는 광고계 스타로도 활약하고 있다.

<아어가>가 그간의 모든 리얼 버라이어티를 뛰어넘는 인기를 끈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귀엽다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다. 무언가의 탄생과 인기는 반드시 그 사회의 현실과 기대를 반영한다. 수많은 '가족 리얼 버라이어티' (이하 '가족 예능') 중에서 <아어가>가 독보적 선두에 선 것은 이 프로그램 속 가족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현실을 상기시키고 가족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현실의 가족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TV 속 가족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많은 가정들이 정리 해고를 당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 자연스레 가족간 소통도 줄어들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해체 위기에 처했으니 사람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리얼 버라이어티는 고정 출연진들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개인적인 일을 서로 챙겨주고 때로는 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모습에서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끈끈한 동료애, 형제애로 뭉친 그들의 가족 같은 모습에 완전히 몰입했고 호응했다. 고정 출연진이 있는 리얼 버라이어티는 가족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해체된 혹은 흔들리는 현실의 가족을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상상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 느끼는 정서의 진정성은 실제 가족의 그것보다 확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시청자들은 더 리얼한, 진짜 가족의 소통을 원했다. 이에 등장한 것이

가족 예능이다. 시청자들은 그 중에서도 <아어가>를 보며 ‘힐링’이 된다고 말한다. <아어가> 속 가족의 중심에는 현실의 가족상에서 보기 힘든 소통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통은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을 통해 여타 가족 예능과 차별적으로 그려진다. jtbc <유자식 상팔자>같은 가족 토크쇼는 스튜디오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가만히 앉은 자세로 제작진이 던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다.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는 가족의 일상을 시각적으로 담지 못한다. 반대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스타 가족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빠와 자녀의 엄마 없는 일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집안과 그 근처 생활 반경만을 범위로 두기 때문에 내용 대부분이 가족에게 친숙한 공간과 상황 위주로만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아어가> 제작진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족이 실제 집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 여행 중 들만의 숙소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편히 쉬거나 얘기하는 모습, 평소 함께 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활동(빙어 낚시, 묘목 심기, 갯벌 체험 등)을 하는 모습 등이다. 가족이 집에서 편하게 쉴 때의 모습과 처음 해보는 체험활동을 할 때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아어가>는 가족을 비슷한 장소나 상황에만 두지 않음으로써 다채로운 소통을 끌어낸다. 다양한 상황에서 아빠와 아이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흐뭇하다. 현실의 가족은 함께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 한 번 가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가족이 둘러 앉아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도 과거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부모는 일하느라 바쁘고 자녀들은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있다. 시청자들은 현실 속 가족의 소통 부재와 그로 인한 상실감을 <아어가> 속 실제 가족의 소통으로 채운다. 시청자들에게 <아어가>는 마음을 다독여주는 ‘힐링’ 묘약인 듯하다.

자연스러운 가족의 성장 이야기

<아어가>는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아빠들과 아이들의 언행을 숨기지 않는다. 이는 다른 가족 예능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과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려할 때 두 명의 MC가 이를 장난스럽게 제지하며 상황을 종료시킨다. 방영 1달을 막 넘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아직까지 아빠와 아이의 갈등보다는 아이에 대한 아빠의 무조건적 헌신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어가>의 아이들이 평균 8세로 상대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반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이들은 평균 5.1세로 아직 상대와 갈등을 일으킬 만큼의 소통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아어가>에는 누군가가 느끼기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에게 엄격한 아빠도 있고, 아이에게 꿈쩍 못하고 늘 어리광을 받아주는 아빠도 있다. 낡은 집에 목계 뽐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펄펄 쏟고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뛰쳐나간 아이도 있고, 지친 아빠에게 계속 안아달라고 떼쓰는 아이도 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은 서로 극명하게 다르고 아이들을 대하는 아빠들의 태도도 각양각색이다. 시청자 개개인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의 여과 없는 방송은 아이의 성격 혹은 아빠의 교육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 실제로 누리꾼들이 왈가왈부한 일도 몇 번 있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 장면들에 대해 별다른 견해를 덧붙이지 않았다. 어떤 아이가 바람직하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시청자가 스스로 찾도록 한 것이다.

여행이 거듭되며 아빠와 자녀들은 모두 정신적으로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아빠는 단연 성동일이다. 첫 방송에서 “우리 아들은 가끔 내가 너무 무서워서 경기를 일으키기도 해요.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해요.” 라고 말하던 무뚝뚝하고 엄한 아빠가 스무 번의 여행을 거치면서 아들과 많이 가까워졌다. 1화에서 성동일은 자식의 어리광 특히 눈물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다. “뚝 하고!” 라며 호통만 쳤다. 그러나 18화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는 아들을 대하는 성동일의 태도는 1화와 판판이었다. 예전의 성동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을 그치라고 했을 터지만 그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아들과 잠자리에 누워 “낮에 왜 울었어?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청난 변화였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오랜 시간 들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경청할 수 있게 된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 역시 꾸준히 변화했다.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를 무서워하던 준이는 아빠에게 먼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장난도 치고 어떨 땐 제법 능글맞게 아빠의 말을 받아쳤다. 민국이는 아이들 중 가장 많이 성장했다는 말을 듣는다. 첫 여행과 두 번째 여행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집에 머물게 된 민국이는 집이 싫다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펄펄 쏟았다. 민국이 아빠는 평소 민국이가 울거나 떼를 쓰면 늘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고 했다. <아이가> 제작진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 후로 민국이는 비슷한 상황을 두 번이나 더 마주하게 되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꼭 참는다.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덤덤하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빠와 아이의 성장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관계 개선은 시청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시청자들은 이를 보며 아이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아빠의 역할에 대한 각자의 주관을 확립해나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는 제작진이 시청자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아빠와 아이의 언행을 방송 초반부터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빠나 아이의 그런 모습에 언짢은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시청자들은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제작진은 단기간의 극적인 관계 개선이라는 인위적 연출을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긴 호흡으로 진솔하게 담았다. 이로써 기획의도 속 질문에 대한 답을 시청자들이 직접 찾도록 했다. 시청자들은 그 답을 마음으로 느꼈다.

수박 겉 핥기 식 힐링

앞서 말했듯 <아이가>는 우리 현실의 위태위태한 가족의 자리를 채워주고 그로 인한 상처를 ‘힐링’ 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기획 의도 속에 소통이 부족

한 가족의 현실, 가족 안에서 자리를 잃어버린 아빠의 모습을 언급했다. 이러한 현실의 가족상에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어가>의 목표인 것이다. 제작진은 그 목표에 맞게 진짜 가족의 성장이 담긴 길고 자연스러운 서사를 만들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시청자들을 위로해주었고 이는 비판받아야 할 점이 아니다. 문제는 그 위로와 치유가 거기에서 멈췄다는 것이다.

<아어가>는 실제 가족의 출연이라는 장치 하나만으로 100% 리얼한 방송이라는 인식을 준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프로그램 속 가족의 모습은 진짜이지만 <아어가> 자체는 제작진의 목표에 맞게 딱 그만큼만 구성되고 상상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제작진은 애초에 이 시대 가족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쓸쓸함, 상실감을 위로해주는 훈훈한 힐링까지만 목표로 삼았다. 힐링은 어떤 문제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지만 그 마음의 원인,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는다. 때문에 <아어가>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힐링은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현실의 쓸쓸함을 채워주는 ‘대리만족’에 그칠 뿐이다. 물론 문제의 본질 해소에는 문제 상황에 직면한 사람의 노력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공영 방송의 소임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음지에 숨은 사회 문제를 양지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현재의 가족은 과거에 비해 그 역할과 가치를 상당 부분 잃었다. 가족끼리의 소통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어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준다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 무척 아쉽다. <아어가> 속 가족의 소통은 진솔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티비 속 세상에만 존재한다.

리얼과 예능 사이

현재 <아어가>는 기존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 흡사 시장과 유사한 속성을 갖게 된 방송계이기에 이해는 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아어가> 출연진의 절반은 7살에서 10살까지의 아이들이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여기서 나오는 순수함과 엉뚱함이 <아어가>의 가장 큰 웃음 포인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의 언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웃음과 재미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작진은 아이들의 모습에 특정 이미지를 씌운다. 보통의 리얼 버라이어티가 출연진의 실제 성격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사기꾼으로, <런닝맨>의 김종국이 절대자로 불리는 것이 그 사례다. 출연진들의 고유 캐릭터는 서로 동맹, 앙숙 등의 관계를 구성해 프로그램의 서사에 더 큰 긴장감과 재미를 준다. <아어가> 제작진은 아빠들보다 아이들의 모습에 더 확고한 이미지를 설정한다. 준이는 보통 아이들과 달리 조용하고 점잖아 언제부턴가 ‘성선비’라 불리게 되었다. 준이가 차분하게 무언가 하는 모습이 나오면 [역시 성선비]라는 자막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준수는 귀여운 얼굴 뒤의 반전 승부욕이 드러나며 제작진에게서 ‘상남자’라는 캐릭터를 받았다. 준수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땐 늘 [상남자]라는 자막이 함께한다. 윤후는 먹는 장면이 부각되면서 [소세지 같은 자태], [하루 6끼 식신] 등의 ‘먹보’ 이미지로 묘사된 적이 많다.

이러한 제작진의 연출이 아이의 실제 성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최대한 지양

되어야 한다. 대중이 아이들을 방송에서 그려지는 특정 모습으로 각인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의 오해나 편견을 사게 된다. ‘윤후 안티 카페’ 사건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어가>의 아이들은 연예인이 아니기에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걱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서도 <아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는 아이들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방송의 논리에 자신을 맞추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아빠들 몇몇은 <아어가> 방송 후 아이가 평소 안 하던 행동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고 말했다. 예능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재미를 돋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캐릭터화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며 프로그램의 위상을 반감시킬 수 있는 위험한 장치다.

<아어가>가 기억해야 할 것: 가족을 지켜라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둘러싼 우려에 출연진을 전원 교체하는 시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이 방송에 노출되는 기간의 최대치를 정할 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각종 매체에 따르면 현재 제작진은 시즌 2를 준비하며 ‘프로그램에 딱 맞는 아이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예능에 거의 출연하지 않는 유명 스타에게 섭외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스타의 활용과 예능 캐릭터의 진화를 통한 화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의 <아어가>에는 유명한 스타가 없다. 예능 대세도 없다. 하지만 다섯 아빠들과 아이들의 소통은 모두 자연스럽고 사랑스럽다. 어떤 가족인들 그렇지 않을까.

방송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시장 논리가 더 깊게 침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어가>의 초심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래도 예능인데’ 역지로 착한 예능, 공익 예능이 되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가족을 소재로 하고 연예인이 아닌 어린이를 출연진으로 세웠다. 오로지 재미만을 추구해도 문제 되지 않을 가벼운 기획이 아니다. 연출할 때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가장 좋은 연출은 예능적 장치라는 조미료를 가미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다. 덧붙여 <아어가>는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현실과 가족에 대한 기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마음의 힐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가족상을 문제로 드러내주었으면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더 의미 있는 방송이 될 거라 생각한다. <아어가>가 가족 예능의 선두에서 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티비 속 가족도 현실 속 가족도 모두 지켜 달라.